

키프로스 대선서 흐리스토둘리디스 전 외무장관 당선

등록 2023.02.13 05:27:37



[파포스=AP/뉴스시스] 키프로스 대선 결선투표에 나선 니코스 흐리스토둘리디스 후보가 12일 남서부 파포스에서 투표하고서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채 걸어가고 있다. 2023.02.13

[서울=뉴스시스]이재준 기자 = 키프로스에서 12일(현지시간) 실시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니코스 흐리스토둘리디스 전 외무장관이 당선했다.

AFP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인 흐리스토둘리디스 전 외무장관이 이날 결선투표에서 좌파후보 안드레아스 마브로이아니스를 누르고 새 대통령으로 뽑혔다.

개표율이 99.5%에 달한 시점에 흐리스토둘리디스 후보는 52% 득표를 얻어 48%에 머문 마브로이아니스를 4% 차이로 제쳐 당선을 굳혔다.

흐리스토둘리디스 당선인은 이념과 정파 간 분열과 대립을 피하고 통합을 지향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선 캠페인을 벌여 광범위한 유권자를 지지를 얻었다.

마브로이아니스 후보는 퇴임하는 대통령의 10년 장기집권에서 변혁을 통해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흐리스토둘리디스 후보에 무릎을 꿇었다.

무소속으로 나섰지만 마브로이아니스 후보가 공산주의 성향의 AKEL 지지를 받는 게 부동층을 흐리스토둘리디스 후보로 기울

게 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14명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5일 치른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일 결선투표를 갖게 됐다.

당시 흐리스토둘리디스는 32.04%를 득표했다. 마브로이아니스 후보는 29.61%를 획득했다.

여당 DISY당의 아베로프 네오피투 후보는 26.11% 득표로 3위에 그쳐 결선투표에 나가지 못했다. DISY당의 10년 집권이 끝난 셈이다.

흐리스토둘리디스와 마브로이아니스 후보 모두 이달 말 물러나는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 밑에서 흐리스토둘리디스는 4년간 대변인으로 일했고 이후 4년은 외무장관을 맡았다.

키프로스 대선에선 등록 유권자 총 56만1273명 가운데 72.05%에 달하는 40만440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